

서평의 중요성

이태동

서강대 인문대학장 · 영문학

근자에 와서 우리는 흔히 스스로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다보면 아직도 '과도기의 터널'을 지나왔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뜻있는 지식인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욕망과 분노로 얼룩진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거친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가 걱정스러워 한다.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OECD에 가입한 것이 반드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선진국이 되는 데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삶의 질과 깊은 관계가 있는 문화 수준이 경제성장과 걸맞게 향상되지 못하고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과도기'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면 결코 선진국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없다.

책을 공급하는 출판분야가 우리의 낙후된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해도 잘못이 없겠다. 왜냐하면 '책을 한 권 더 읽으면 얼굴 빛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감정을 교육시켜 지나친 욕망을 절제하고 세련된 질서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도록 권장해서 의식수준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출판계가 이렇게 무거운 문화적인 책임을 후회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말할 수 없다. 물론 출판계는 날마다 정보의 홍수를 이룰 만큼 수없이 많은 책을 서점가에 제공했다. 그러나 '출판인'의 명예를 버린 '출판업자'들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는 해악을 준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어느 명문 출판사마저 '사회적인 권위를 해체'시키기 위해 광란적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국민정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을 만들어 출판인의 명예를 추락시킨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베스트셀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데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것이 출판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베스트셀러는 대중의 선정적인 호기심과 센티멘탈리즘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교육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출판사가 출판할 대상이 아무리 빈약하다고 하더라도,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 나라의 문화 발전과 국민의 의식수준을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와 유능한 필자를 발굴하는 일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민자본주의적인 생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출판사들은 출판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서 우리 사회가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책을 만들어낸다. 현란하게 포장한 이러한 책들은 독자들의 시선을 어지럽혀 판단을 흐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출판저널》이 시행하고 있는 서평 작업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이다. 서평 작업은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 속에서 훌륭한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길을 막아주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출판계가 불황일수록, 의식없는 출판업자들은 경쟁의 정글 속에서 더욱 더 광란적인 몸짓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출판저널》은 보다 치밀하고 분석적인 서평 작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출판저널》이 우리의 유일한 출판정보지로서 튼튼히 뿌리를 내리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가를 여기서 세삼스럽게 밝힐 필요가 없겠다. 그러나 《출판저널》의 질적인 내용이 반드시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제공하는 출판정보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다 할지라도 서평의 질적인 수준이 매우 좋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보다 분석적이고 전문적이며 건설한 서평이 절실히 요구된다. ♦

신년 특집 2 새해 저술 흐름의 과제와 전망

문학(방민호) / 철학(김광명) / 한국사(이기동)
사회학(신광영) / 자연과학(김명자) /
문화일반(김창남)

8 구조혁신의 첫발 내딛는 한 해

10 새해 독서시장 '인문부흥'의 본격 장 연다

12 97년, 이들을 주목한다

강태형 / 김학원 / 김동광 / 정정호

이 책을 말한다 14 한 역사가의 '넓고 깊은' 학문의 발자취 - 조인성
(이기백 한국사학논집)(전11권)의 간행을 보고

저자 초대 16 대하소설 《혼불》 전10권 펴낸 최명희씨

17 《권력과 매춘》 펴낸 박종성 교수

확대 서평 18 리처드 로티 《실용주의의 결과》 외 - 황희숙

해외신간 리뷰 20 매력적인 전망 담은 21세기의 고전 - 박영도

출판 포커스 21 보석같은 책만이 성공한다 - 이중환

출판화제 22 현장감 살아있는 행정관료의 저작 활발

출판계 소식 23 제3회 독서대상 시상식 열려·외

책이 있는 풍경 24 '문화'를 일궈내는 공간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김문환 원장의 서거

서평 26 이인철 《신라총각사회사 연구》 - 김갑동

일상문화연구회 《한국인의 일상문화》 - 김광억

27 김남두 외 엮음 《대화개혁의 과제와 방향》 - 서정화

28 조용현 《정신은 어떻게 출현하는가》 - 박은진

린 헌트 엮음 《문화로 본 새로운 역사》 - 조지형

29 구중서 《문학과 현대사상》 - 김철

이 책 그 사람 30 《경주에 가 보았어요》 펴낸 임영균씨

《비엔나엔 비엔나커피가 없더라》 펴낸 신창섭씨

31 《그림없는 미술관》 펴낸 안규철씨

《여간내기의 영화교실》 펴낸 김동훈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책의 문화유산 ①

謹賀新年

애독자와 출판인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7년 새해
(재)한국출판금고 임직원 일동